

### ‘새로운 전북 만들 것’ 김관영 도지사 취임 한 달

# “기업유치·교육협력... 혁신의 양 날개 신호탄”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이 출범 한 달이 지났다.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국가예산 확보, 대기업 유치 등을 위해 발로 뛰며 전북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비밀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희망을 만들어야겠다’는 절박함으로 자시직에 임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취임한 이후 민생을 돌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한 것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등 정부 각 부처 장관, 여·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시기적으로도 시급한 국가예산 확보 활동 전면에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취임 한 달여 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향한 양 날개를 펼치기 위한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한 축은 기업유치, 다른 한 축은 교육협력”이라고 지목했다.

김 지사는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해 “최근 두산과의 투자협약 체결은 대기업 유치의 신호탄”이라고 자평하며, “이는 단순히 김관영 도정의 성과 문제를 넘어 전북도민의 기세를 올리는 문제로 인식하고 기업유치에 임했다”는 의지를 확고히 내비쳤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최근 쿠팡의 안주 투자 이슈로 도민들의 기세가 꺾여서는 안된다”며 “쿠팡의 투자유치 건은 면밀히 살펴보고 전북 내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플랜 B를 포함해 쿠팡의 책임 경영진과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전방위적으로 여러 기업과 협의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기업유치는 상대와 경쟁자여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에 신중히 접근하고 결심이 맺어지면 그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와 함께 “포용적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포용적 혁신 프로젝트”는 “전북 내 중소기업들을 혁신 프론티어로 상향 이동시키는 프로젝트”라며, “국내 우수 대기업의 전문 역량이 전북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직접 지원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전북형 상생형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프로젝트 역시 시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늦지 않게 시작해 기업 유치와 동시에 전북의 경제주체들의 생산성과 혁신 프론티어로 상승해 결실을 거두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은 국회의원 원내대표 시절 20여 년간 구호만 남았던 선거제 개혁을 이끌고 입법과 예산 합의를 이끌어냈던 이른바 ‘포괄적 협상과 합의’라는 투트랙 방식을 모색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 지사는 전북의 먹거리, 양질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기업유치 및 교육협력 등 도정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지방이전 기업 상속세 감면 등 4대 제안 국가 아젠다로 교육협력 ‘파일럿 프로젝트’ 가동되게 할 것” 밝혀

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유치와 관련해 제도적 혁신을 전북이 주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시 기업 상속세 감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부여,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이양 건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건의 등 4대 제안을 대한민국의 아젠다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지사직 인수위 때부터 도정과 교육협력, 교육 협치를 추구했다”며, “도교육청,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단과의 협약 체결이 완료돼 각개 약진했던 과거와는 다른 ‘교육원팀’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교육협력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협약 체결 이후 오늘 실무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된다”며 “교육협력추진단 조직 구성과 동시에 곧장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드는 등 교육협력의 파

일롯 프로젝트’가 가동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촌유학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나가 보는 것도 교육혁신의 파일럿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조만간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 전북이 농촌유학의 모델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와 교육협력의 양 날개가 펼쳐지고 있다”며 “도정운영의 혁신을 통해 공무원들이 혁신의 리더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과 성공을 위한 열정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 지역 위기로”

민주 김윤덕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서 “尹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언론 패심이자, 새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역언론은 중앙언론과 달리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와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고민할 주체가기 때문에 건강한 지역 언론 지원이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라며, “지역 언론들에게 이번 결정은 ‘지역언론패싱’을 넘어 시한부 선고로 보여진다.”고 지역 언론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지방방송 쪼리”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방방송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8일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위원으로 선임됐다. /김경수 기자

### “전북 경기침체 비상 예산 조기집행 신속히”

박용근 도의원

전라도의회 박용근 의원(정수)은 28일 전북도 소관 추경 제2차 회의에서 “예산 집행 차가 길어 지는다면 사업 선정 자체가 장기화 되는 문제가 있다”며 “침체된 전북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말뿐인 조기 집행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순도비 사업예산을 어렵게 확보, 편성해놓고 쓰지 못하면 경기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경제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하면 후반기 재정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조기 집행을 통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212억원으로 2022년 분예산 9조 1,005억원 보다 13.4%를 증액 요구해 추경을 통한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경수 기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28일 서거서 전북교육감을 찾아 간담회를 연 뒤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학부모 악성민원 고발 조치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기종 전북교총 회장 서 교육감 찾아 “학교·교원 보호에 나서 달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28일 서거서 전북교육감을 찾아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조치하고 학교·교원 보호에 나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마비되고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학부모 고발조치 시행, 학교·교원 보호, 악성 민원 차단 방안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교육감은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악성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며 “교총이 추진하는 생활지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화 상시화 △정책적 지원 사안 발생 시, 신속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인 운영 △2022 단계교섭 조기 타결 △전입 교육감의 교원 고발조치 취하 등을 언급하며, “교단 안정과 학생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교총과 파트너십을 갖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손잡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 김동식 교원본부장, 이호중 교원지원국장,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 오한섭 사무총장과, 전북교육청에서는 서거서 교육감, 김숙 교육국장이 참석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 국가 공원 ‘재인증’

고창 운곡습지 등 포함... 탐방객 체감 등서 높이 평가 도, 내년 유네스코 인증 도전·국제 브랜드 육성 방침

고창 운곡습지와 부안 채석강 등이 포함된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이 국가 지질공원으로 재인증에 성공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제27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전북 서해안권 국가 지질공원 재인증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운영, 탐방로 정비, 방문자 센터·쉼터 조성 등 지질관광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고창군 부안군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지역주민과 협력해 신규 탐방·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체류 관광객 확대 등 관광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특산물 판매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023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고 서해안권 지질공원을 국제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간 전북도는 서해안권 지질공원을 국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유네스코 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진행되는 유네스코 현장실사와 이사회 의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유네스코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국가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행안부 경찰국 설치 대비 도내 경찰관 의견수렴

전북경찰청 교육센터서 120분간 열띤 토론 이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가 전북에서도 열렸다.

28일 오후 2시에 전북경찰청 교육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경찰관 3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강현수 전북경찰청장도 교육센터를 찾았다. 이들은 약 2시간 동안 의견을 내놨다.

회의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설치 이후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증언했다.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설치 이후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증언했다.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경찰국 설치로 인해 계급 간 회의가 이뤄졌는데, 이를 계기로 회의를 정례화해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경찰조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북색연합, 전북평화외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경찰국 설치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경찰국 설치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 중추를 강화하는 것일 뿐 시민들을 위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의 위임 없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행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절차, 내용으로 잘못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과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정읍시의회, 올 제1회 추경 1조956억여원으로 확정

정읍시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1조956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정읍시의회는 28일 제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거쳐 상정된 민생안건을 비롯해 정읍시의 제1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의회로부터 승인된 정읍시의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조956억4819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213억1350만1000원, 특별회계는 743억3469만7000원이다.

앞서 의회는 앞으로 1년간 정읍시의 편성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만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명재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정은성 기자